

“친구야! 새해에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할게.”

2008년 1월 1일 오전 12시 23분. 보신각 종소리와 함께 목은해를 흘러보내고 2008년 새해를 맞이하는 환호가 TV화면에 가득한 시간이었다. 핸드폰이 문자메시지 들어왔다고 신호를 보냈다. 새해가 시작될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선한 그 시간에 내 오래된 친구 화속이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덕담을 보냈다. 가슴이 설레고 벅찼다.

환갑이 넘어 문자 보내는 법을 배웠다더니 그는 그 시간에 자기 않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생각해 새해맞이를 하고 있었다. 그 이웃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도 기쁨이었다.

가톨릭 신자인 그가 성모마리아님께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충만함이 내 맘에 감돌았다.

1월 1일 오후 나는 화속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해맞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감동했다. 어떻게 새해가 열리자마자 문자 보낼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자정미사에 다녀와서 보냈다는 것이다.

내 예감이 맞았다. 예배를 올리며 발원하고 그 마음이 식기 전에 문자메시지에 답하 내게 보낸 것이다. 어찌 내 마음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는 의례적인 새해인사가 아니라 마치 선물을 고르고 포장하듯 정성을 다해 내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보내준 것이다. 40여년 가까이 온 우리의 우정은 그렇게 또 다져졌다.



불자 세상보기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前 편집국장

짧은 덕담 긴 여운

“새해에도 왕성한 활동 기대합니다. 모친께서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0세가 넘으신 은사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메시지다. 새해 첫날 나의 가슴은 또다시 벅차올랐다. “선생님, 어떻게 저까지 챙기셨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뭘 남는 게 시간인데...” 아주 편하게 답하셨다.

어학교 물리선생님으로 시작해서 대학의 물리학교수로 정년을 마친 나의 은사님은 후배교수들을 위해 퇴임 후 강의를 사랑하신 그런 분이시다.

지난해 1월, 내가 쓴 책을 보내드렸더니 ‘생각하며 읽느라 인사가 늦었다’며 전화를 주셨다. 선생님께서서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며 짧은

내서 책을 펴내고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 나를 대견스럽게 여기셨나보다. 그러기에 올해도 그렇게 활동하길 바라시면서 어머니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주신 것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나는 은사님과 내 친구의 새 아침 덕담을 떠올리려 가슴이 뻘뻘해진다. 그리고 그 기원 덕분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어머니 건강도 좋아지고 나도 건강할 것만 같다.

“웃는 새해”. 마치 사자성어 화두처럼 짧은 새해 덕담도 받았다. ‘웃는 새해’가 되길 축원해 주는 이 덕담은 축원에 머물지 않는다. 2008년 이 웃는 해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게 한다.

이 덕담을 보내신 분은 아마 자기를 비롯하여 이웃이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며 신년 화두로 삼아 여러 친구 또는 후배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분이 선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웃는 해는 그냥 되지 않는다. 웃을 수 있도록 정진하고 여러 방면에서 공덕을 쌓으며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한 마디로 잘 살아야만 웃을 수 있다. 잘 살려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된다. 나는 수시로 나를 살필 것이다. ‘웃는 새해’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찡그리거나 화를 낼 일이 생기면 얼른 ‘웃는 새해’를 떠올리겠다.

비슷한 덕담이 또 하나 있다. ‘연시호년 일시호일(年是好年 日是好日)’ 연하카드에 답하 보낸 이 덕담도 내 마음에 새겨졌다.

새 아침에 받은 짧은 덕담이 이렇게 긴 여운을 준다는 것을 나는 올해 아주 깊이 느꼈다. 이제 며칠 후면 무자년 설날이다.

많은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등의 덕담을 나눌 것이다. 그 덕담에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진정(眞情)이 담겨야 한다. 진정이 담긴 덕담은 생기(生氣)를 발한다. 생기 머금은 덕담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그러한 덕담의 메아리가 가지지 않고 울려 퍼지면 우리를 가슴에서 희망의 등불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나에게 문자로, 전화로, 연하카드로, 아니면 얼굴을 보고 덕담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더불어 그 덕담의 향기가 공덕으로 피어나도록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불자의 눈

태릉선수촌 법당이 상징하는 것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올 해 한국불교는 올림픽 무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불교계가 이러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것 같지 않다.

전법 활동의 성패는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시스템이 좌우한다. 베이징올림픽이라는 기회를 전법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의지의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자체에 대한 법률 교적 고민이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1월 23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법당 개원법회는 체육인 포교와 체육인을 통한 포교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의미 자리였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여서 더욱 그러하다. 따지고 보면 태릉선수촌에 법당이 없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전법 의지와 시스템 부재를 잘 대변해 주는 상징이었다. 법회에서 선수들이 밝힌 소감이 따르면 그간 법당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운영이 되지 않아 침체 일로를 걷다가 인근 사찰에 가서 법회를 보기도 하는 고생을 했다는 것이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인의 눈길을 받으려 기량을 뽐내는 국가대표들이 법회를 보기 위해 승합차를 타고 선수촌 인근 사찰을 찾아다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조계종 포교원이 체육인불자회를 활성화 시키고 (재)한 마음선원이 기획한 3억 원을 바탕으로 태릉선수촌 법당이 개원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불사다. 이 법당을 중심으로 체육인들이 마음을 뒤편기 기량을 더 높이고 그들을 보는 세계인들이 불교에 귀의할 수 있길 바란다.

10·27 법난 특별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10·27 법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월 말로 예정된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 속에 이 법을 발의한 통합신당 윤원호 의원과 한나라당 안병욱 의원이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조계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1월 23일 마련한 회의에서 두 의원은 2월말 임시회의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종단과 개인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 추모사업과 관련 단체 지원 등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조계종도 10·27 법난의 범위를 보다 확대 해석하는 입안을 내놓는 등 특별법의 성격과 기능 등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무엇보다 이 특별법과 관련한 현안은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제정을 결의 하는 것이다.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위원회 차원에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거나 정치 쟁점에 밀릴 경우 자동폐기의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그간 정부를 상대로 10·27 법난의 실제구명과 책임자 처벌 및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인 이 특별법의 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별법은 정부와 불교계가 해묵은 ‘유감’을 씻고 화해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불교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해당 국회의원들도 임기 막판이라는 인식보다는 보다 철저한 사명감으로 불교계의 ‘역사적 상처’에 맑은 물을 부어 주어야 할 것이다.

황수경(종국대 선학교 강사)

지혜 있는 사람의 인생덕목(人生德目)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49 지혜로운 마음을 입력합니다

한 30대 법우님이 보내주신 글을 함께 나눕니다. 새해를 계획하시며 진실하고 희망찬 마음을 입력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웃음(笑) 웃는 연습을 생활화하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치료약이며 노인을 젊게 하고 젊은이를 동자(童子)로 만든다.

● TV(바보상자)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 동거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텔레비전에 취하면 모든 게 마비 된 바보가 된다.

● 성명(禰)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본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 기도(祈禱) 기도는 녹슨 쇠덩이도 녹여며 천 년 암흑 동굴의 어둠을 없애는 한줄기 빛이다.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기도는 자성을 찾게 하며 만생을 유익하게 하는 묘약이다.

● 이웃(隣) 이웃과 절대로 등지지 말라.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묵욕하고 바르게 앉아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 보아야 한다.

● 사랑(慈愛)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나눔이 선행된다.

● 멈춤(止觀) 가꿈은 질척같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가슴으로... 주인공이 되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여유로움이 생기니.

독자여러분, 새해의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매사를 내 근본이 이끌어간다고 믿으면 생활이 곧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도 마음속에 계신 자성부처님을 진실하게 믿고 모든 것을 놓고 맡기시어 지혜와 자비가 더

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 말(言)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이 나온다. 양 귀로 많이 들으며, 입은 세 번 생각하고 열라.

■ 책(讀書) 수입의 1%를 책을 사는데 투자하라. 웃이 헤치면 읽을 수 없어 버리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위대한 진가를 품고 있다.

■ 노점상 할머니 등 노점상에서 물건을 살 때 께지 말라.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책자 안내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아픈이 이제 끝!! 美圖산 신비의 치약